

광주은행-중·고생들, 복지시설 봉사활동



광주은행은 지난 9일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생 250여명과 '광주은행 지역사회봉사단' 1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시 광산구 장애인 복지시설 소화성기정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은행 제공>

동신대, 독거노인 찾아 코디제안 사진 촬영



동신대학교 코디네이션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최근 나주시 노인복지관을 방문, 지역 독거노인 40명을 대상으로 '멋있는 코디 제안 및 사진 촬영' 행사를 가졌다. <동신대 제공>

한전 전남본부, 아동센터 어린이와 물놀이



한국전력 전남본부 사회봉사단(단장 김귀중)은 최근 광주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90여명을 초청, 광주 우치공원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함께 했다. <한전 전남본부 제공>

광주정부전산센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



행정안전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유창중)는 최근 범국민 에너지절약 실천 홍보를 위해 '초고유가 극복 에너지절약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광주정부전산센터 제공>



■ '박태환 금메달' 지켜 본 아시아 물개 조오련 씨

“한국 수영 금메달恨 풀어줘 고맙다”

“한국 수영의 한(恨)을 풀어준 박태환 후배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56)이 박태환(19·단국대)의 한국 수영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소식에 “4천800만 대한민국 국민의 기쁨이자, 한국 국력의 고도 성장을 입증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켜봤다”는 조오련은 “경기 초반 박태환을 견제하던 헤켓이 오히려 박태환의 작전에 말려 6위로 떨어지더라”면서 “박태환의 명석한 두뇌 플레이와 경기 진행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조오련은 “아직 남은 종목이 있는 만큼 경기 준비할 때 처음 수영을 시작했을 때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며 두 번째 금메달 소식을 기대했다.

혼계영 발전 토대 됐으면

그는 특히 “세계 정상에 오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심을 지키는 것”이라며 “최정상에 오르는 것은 어렵지만,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도 옳은 길로 가도록 충고해야 한다”며 애정어린 지적도 아끼지 않았다.

조오련은 이어 “박태환이 금메달을 땀지만 국내 수영이 진정 발전하려면 혼계영 종목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자유형 한 종목뿐 아니라 접영, 배영, 평영도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오련은 자신의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요즘은 비만하면 새는 지방을 직접 고치느라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아직은 독도프로젝트의 그림자가 너무 커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 한국 수영에 보탬이 될만한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명석한 두뇌플레이 박수

최근 ‘독도 33바퀴 해엄쳐 돌기 프로젝트’를 성공한 뒤 고향인 해남에서 휴식 중인 조오련은 10일 “세계적 선수인 헤켓을 자신의 페이스 메이커로 전락시킨 박태환의 수영 카리스마에 자못 감동을 느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TV 중계를 통해 박태환의 금메달 현장을

허상만 전 농림장관, 퇴임 기념 문집 발간

34년 교직·공직생활 마감...지식인 사명·고뇌 담아

순천대 총장, 농림부 장관을 지낸 허상만(65·사진)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이 34년 간의 교직과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퇴임 기념 문집 ‘예산(禮山) 허상만과 함께 한 즐거운 동행’을 발간했다.

순천대 총장으로서 미래 지향적 대학 혁신 방안 제시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등 대학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과정이 담겨 있다. 또 농림부 장관 시절 한-칠레 FTA 국회 비준, 쌀 관세화 10년 유예, 농업·농촌발전 119조 원 투자 계획 등을 일궈낸 땀을 엿볼 수 있다.

기념문집 발간에는 한승헌 변호사, 장태경 농림부 장관, 손보균 순천대 교



수 등 동료 교수 및 농림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표지에 허 이사장의 교직 시절 사진이 담겼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명창 안숙선, 보성소리 ‘심청가’

30일 국립극장서 제자들과 ‘완창 판소리’ 공연

“같은 판소리 마당이라도 누가 부르냐에 따라 철학과 가치관 등이 다르게 외닿을 수 있어요. 이번에 뛰어난 제자들과 함께 ‘심청가’를 부릅니다. 개인의 독창성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자리라 될 겁니다.”

안숙선 명창(59)은 오는 30일 오후 7시 국립극장 ‘KB청소년 하늘극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성소리 ‘심청가’를 선보인다.

보성소리란 19세기 말 보성으로 낙향한 서편제의 명창 박유전에서 정재근으로 이어지고 또 그의 아들인 정응민으로 내려온 판소리 유파

를 말한다. 안 명창이 제자들과 함께 서는 이번 무대는 국립극장의 ‘완창 판소리’ 공연이다.

완창 판소리는 보통 2~4시간에 걸쳐 판소리 한마당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것으로 이번에는 오후 7시에 시작해 4시간 이상 계속된다.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안 명창이 부르고 남성 명창으로 꼽히는 한승서, 국립창극단 단원인 유수정, 정미정, 김지숙, 김유경, 서정금이 중간 내용을 채운다.

안 명창은 “소리 잘하는 제자들과

어떤 무대를 만들어 나갈지 나 자신도 기대된다”며 “국악은 원래 부르는 사람과 듣는 이들이 서로 즐기고 어우러지는 음악인데 이번 공연에서 그런 전통공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창극단 원로단원인 안 명창은 9월 26~10월 4일 열리는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조지위원장도 맡고 있다.

안 명창은 올해 소리 축제에서 야외 무료공연 등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행사를 준비했으니 관객들이 많이 찾았으면 한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2만원. (02)2280-4115~6.

“부담 컸을텐데...자랑스러워요”

‘원더걸스’ 선예, 박태환에 축하 메시지

“월드컵 때처럼 소속사 가족들과 함께 경기를 보면서 무척 긴장했어요.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모두 함께 소리를 질렀죠. 어린 나이에 부담이 컸을텐데,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태환이가 자랑스럽습니다.”



‘마린보이’ 박태환과 절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는 그룹 원더걸스의 선예가 10일 오전 2008 베이징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박태환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박태환은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과도 친한 형, 동생 사이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 모두 국내에 있을 때는 자주 만나 식사를 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문자와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는다.

강석우 “제 멀티인생 어때요”

연기자 데뷔 30년 맞아

연기자, 라디오 DJ, 광고대행사 CEO, 화가, 색소폰 연주자, 클래식 공연 해설자, 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난치병 어린이 돕기 재단의 한국 후원회장...



강석우(51·사진)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은 이처럼 다양하다. 1978년 영화 ‘여수’로 데뷔한 후 1982년 드라마 ‘보통 사람들’에서 준수하고 성실한 법대생 이강일 역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벌써 데뷔 30년을 맞았다.

연기자 생활 30년이면 ‘관리 모드’로 접어들만 한 시기지만 그는 요즘 오히려 ‘멀티플레이어’로 변신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7~8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머리가 복잡해요. 하지만 이런 삶에 대해 감탄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제 나이에 이런 식의 인생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재광 전주 영생교 총동문회(회장 박노호)는 19일(화) 오후 7시 쌍촌동 광주국세청 인근 청원회관. 062-385-3395.

종친회

▲광산구 가락 종친회(회장 김명호) 월례회=15일(금) 송정2동 종친회관. 062-944-1951, 016-612-8125 (김형근).

모임

▲국제와이즈넷 상무클럽 월례회=12일(화) 오후 7시 동구청 옆 불로가톨릭. 010-6688-8983(사무장 조준호).

알림

▲광주종합사회복지관 광주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 상담=아동 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 상담. 062-264-4370.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대 동수리학과 무료 공개강의=23일(토) 오후 2시~5시 중앙도서관 5층, 책자 무료 제공. 062-670-2161, 011-609-8117.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

forchild.or.kr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홈패션,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믹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오지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외로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체 장애인에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특정 지장,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062-363-2240.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8877.

모집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의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트로트 가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모집=누구나 환영. 017-661-0991.

▲사람의 배움학교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 교사 및 수강생 모집=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급 검정고시반, 한문반. 광산구 하나삼심병원 인근. 062-951-5397, 011-9456-6037.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지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광주FC 축구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운동장 서강고 운동장. 017-656-3431.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꽁꽁,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약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기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양성수시 모집=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부음

▲박귀길씨 별세 김대용(사업·대원(조선대 부총장)·대성(사업·난영·난성씨 모친상 김은영·장희경(광주대 교수)·김승주씨 시모상 김영철(전 조양운수 회장)씨 빙모상=발인 12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11-640-7815.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남몰모특별분양 (062)222-0201